

2006년 시정여건과 추진방향

2006년 시정 여건

▣ 지방분권과 지역혁신, 지역균형발전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이 심화되는 등 변화와 도전의 해가 될것으로 예상

- 구미공동체의 방향을 재정립하면서 구미공단의 새로운 진단과 발전 방안 마련 및 광역경제권을 함께 구축해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
- 새로운 구미시대를 여는 해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 특성을 살린 구체적 발전 전략과 새로운 구미비전 제시 필요

⇒ **희망찬 구미의 미래를 열어가는 역동적인 시정추진**

올해 시정의 중점추진 방향

▣ 지역경제에 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한국경제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, 놀이터, 일터, 삶터가 어우러진 사계절 건강한 인간중심 도시건설, 더불어 함께 행복을 나누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큰 줄기로

-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을 위하여 R&D 지원시설 확충 등 『기업하기 좋은 도시』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결집하고
- 구미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과의 상호 기능별 보완으로 공동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광역경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여
- 교육, 문화 인프라, 여가공간 확충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

⇒ **50만 구미시대를 여는 정주여건 조성에 역량 결집**

2006년 경제 목표 : 생산 51조원, 수출 340억불